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 5 No. 1(2003)

朝鮮 後期 宮中舞踊服飾의 服色思想(Ⅱ)에 關한 硏究
-佳人剪牧丹·高句麗舞·公莫舞·萬壽舞를 중심으로-

남 후 선
대경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Court Dancing Suit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 Centering around dances GaInJeonMok-Dan · GoGuRyeo-Mu · GongMak-Mu · ManSuMu -

Hoo-Sun Nam
Dept. of Fashion Design, Taekyung College

(2003. 2. 1. 접수)

Abstract

The court dancing suit, so-called "JeongJae(呈才) suit," has been worn by court dancers. Since the court dancing suits in the age of the ancient Three Kingdoms and Koryo Dynasty have already been studied previously, this study discussed the change of dancing suit styles created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such as GaInJeonMok-Dan(佳人剪牧丹) · GoGuRyeo-Mu(高句麗舞) · GongMak-Mu(公莫舞) · ManSuMu(萬壽舞), and the thought of Yin-Yang and five elements(陰陽五行思想) that the colors of the court dancing suits imp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oughts contained in the ancient suits as well as their styles in order to inherit and uphold our traditional culture properly.

Key words: Court Dancing(궁중무용복식), GaIn Jeon Mok-Dan(가인전목단), GoGuRyeo-Mu(고구려무), Gong Mak-Mu(만수무), Eurn-Yang-Oh-Haeng:Lunar-Solar-Five-Naturil-Elements(음양오행사상)

Ⅰ. 序論

본 논문은 한국궁중무용복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발표한 논문들[1]들 중 "朝鮮 後期 宮中舞踊服飾의 服色思想에 硏究(Ⅰ)"에 연속되는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정재복식 중 佳人剪牧丹·高句麗舞·公莫舞·慶·圖를 중심으로 형태와 색상, 복색에 나타난 상징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에 도움이 되고저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2]인 고찰을 기본으로 하고,

1) ① 李正玉, 南厚先(1998). "宮中舞踊服飾에 關한 硏究(Ⅰ)-三國時代 발생된 舞踊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② 南厚先(1999). "宮中舞踊服飾에 關한 硏究(Ⅱ)-高麗時代 발생된 舞踊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③ 南厚先(2000). "朝鮮後期 宮中舞踊服色의 服色思想 硏究(Ⅰ)-六花隊·舞山香·春鶯·口轉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2) 성종24년「樂學軌範」, 숙종45년「進宴儀軌」, 정조19년「園幸乙卯整理儀軌」, 순조27년·순조28년「進爵儀軌」, 순조29년·헌종14년·고종5년「進饌儀軌」, 고종10년「進爵儀軌」, 고종14년·고종24년·고종29년·광무5년·광무6년「進宴儀軌」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정조 19년 ·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광무 5년의 병풍과 진연 · 진찬 · 진작의궤에 나타난 회화자료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朝鮮時代의 舞踊은 新羅時代의 무용과 高麗時代의 무용을 이어받아 궁중정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때 창작 또는 재현된 呈才가 무려 36종으로, 이것은 朝鮮末까지 춤추어진 呈才가 53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이다.

특히 朝鮮後期는 壬辰倭亂(1592) · 丙子胡亂(1636)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나라의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의 파괴 또는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第17代 효종 8年(1657)에 樂制가 제정되어 牙拍 · 饗 · 舞 · 舞鼓 · 處容舞 · 初舞 · 廣袖舞 · 獻仙桃 · 壽延長 · 五羊仙 · 抛毬樂 · 蓮花臺 · 夢金尺 · 荷皇恩 · 鳳來儀 · 牙拍舞 · 饗 · 舞 · 舞鼓 · 處容舞가 있다. 이 呈才들은 正祖祖까지 계속되었고 純祖祖에 새로 創製된 呈才와 함께 高宗말까지 거의 계승되었다.

純祖때는 宮中呈才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純祖 27년 2월에 김창하 전악이 낙점된 이후,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보살피던 왕세자(효명세자:익종)와 함께 많은 呈才를 창제했는데, 望仙門 · 慶豊圖 · 萬壽舞 · 獻天花 · 春臺玉燭 · 寶相舞 · 影池舞 · 撲蝶舞 · 響鈴舞 · 沈香春 · 蓮花臺 · 春鶯 · 春光好 · 疊勝舞 · 獻天花 · 佳人剪牧丹 · 舞山香 · 高句麗舞 · 公莫舞 · 舞鼓 · 饗 · 舞 · 牙拍舞 · 抛毬樂 등이 있었다. 그 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高宗조에는 혼란한 정사 중에도 많은 연회가 진행되었다.

光武 5年(1901)에 高宗皇帝의 滿五旬을 송축하기 위해 進宴을 베풀었으며, 光武 6年(1902) 11월에 대규모의 進宴이 최후로 宮中에서 연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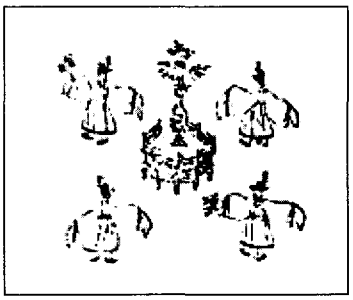
강희4년(1910) 경술국치로 조선왕조 5백년의 왕업은 끝난다. 宮中의 아악과 呈才를 맡았던 장악원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아악대란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후 1923년 3월 순종의 50회 탄신 기념연회와 1930년 7월 영친왕 내외분의 환국 때 아악부에서 舞童呈才가 행해진 후, 오늘날까지 舞童呈才는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다.

Ⅲ. 朝鮮 後期 宮中舞踊服飾

(1) 佳人剪牧丹

佳人剪牧丹은 조선왕조 純祖 己丑년에 효명세자가 선조의 문덕과 무덕을 찬양하여 지은 鄕樂呈才 양식의 춤이다. 나라잔치 때 가장 많이 추는 이 춤은 활짝 핀 모란꽃을 가득 꽂은 화병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무희들이 편을 짜서 꽃을 꺾으며 즐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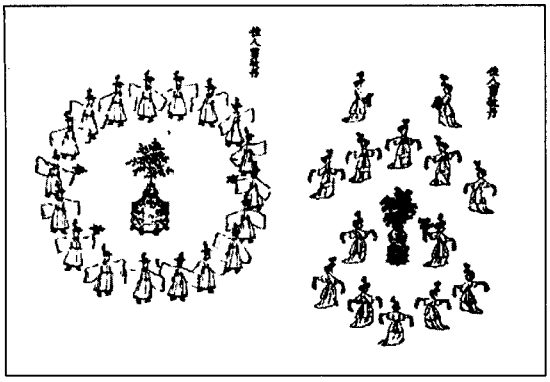
가인전목단의 복식형태를 살펴보면 〈圖1〉은 순조28년 가인전목단으로, 무동 4인이 화병(木樽)에 꽂힌 목단꽃을 꺾어들고 춤을 추고 있다. 純祖 己丑「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에 "佳人剪牧丹舞童載은 · 光帽를 쓰고 紅羅袍 · 白質黑線中單衣 · 藍質黑線裳 · 綠汗衫 · 珠鈿帶 · 無憂履를 신는다."[3]고 했다.



〈圖 1〉 純祖 戊子, 佳人剪牧丹

〈圖2〉는 순조29년 가인전목단으로 외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목단화병을 가운데 두고 춤을 추었는데 순조 28년보다 무원의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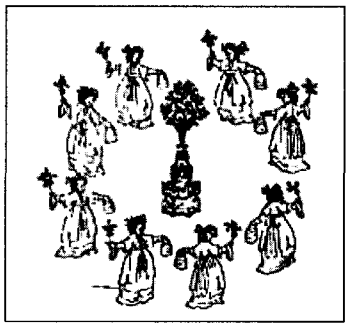
3) 純祖 己丑「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佳 人剪牧丹舞童載 硏光帽着紅羅袍白質黑線中單衣藍質黑線裳繫綠汗衫珠鈿帶無憂履



〈圖 2〉 純祖 己丑, 佳人剪牧丹

훨씬 많아졌다. 純祖 己丑「進饌儀軌」卷附編 工伶條에 "가인전목단 무동은 각건 · 홍포 · 백질흑선중단의 · 남야대 · 흑화를 신었다[4]."고 했다.

〈圖3〉은 헌종14년 가인전목단으로 12인의 여령이 목단화병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춤을 추고 있다. 憲宗 戊申「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飾은 화관 · 황초단삼 · 이남색상표홍초상 · 홍단금루수대 · 초록혜에 白汗衫을 한다."[5]고 했다. 또 卷3 樂器風物條에는 "佳人剪牧丹의 汗衫은 玉色禾紬로 하고, 纓子는 紅禾紬로 하였다."[6]고 했다.



〈圖 3〉 憲宗 戊申, 佳人剪牧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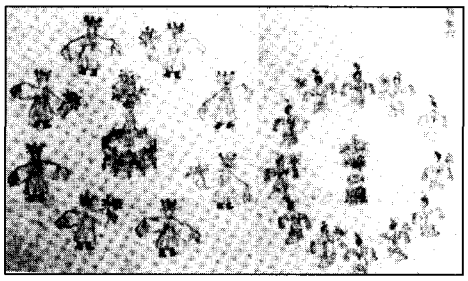
高宗 癸酉「進爵儀軌」卷2 工伶條에 "佳人剪牧丹呈才女伶은 화관 · 황초단삼 · 이남색상표홍초상 · 홍단금루수대에 玉色汗衫을 띠었다."[7]이다.

高宗 丁丑「進饌儀軌」卷2 工伶條에 "가인전목단 정재여령은 화관 · 황초단삼 · 이남색상표홍초상 · 홍단금루수대 · 초록혜에 옥색한삼이다."[8]

高宗 壬辰「進饌儀軌」卷3 工伶條에 "佳人剪牧丹呈才女伶은 一般女伶服飾과 같으나 오색한삼이 아니라 紅汗衫을 썼다."[9]이다. 또 卷3 樂器風物條에 "佳人剪牧丹의 汗衫(玉色鱗紋甲紗로 함), 纓子 및 流蘇(五色眞絲로 함)를 달았다."[10] 라고 했다.

光武 辛丑「進饌儀軌」·「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佳人剪牧丹呈才女은 화관 · 녹초단삼 · 이남색상표홍초상 · 홍다금루수대 · 초록혜에 玉色汗衫이다."[11]

〈圖4〉는 광무6년 가인전목단으로 외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추고 있다. 光武 壬寅「進宴儀軌」卷3 工伶條에 "佳人剪牧丹呈才女伶은 화관 · 녹초단삼 · 이남색상표홍초상 · 홍단금루수대 · 초록혜에 옥색한삼을 했다."[12]



〈圖 4〉 光武 壬寅, 佳人剪牧丹

4) 純祖 己丑「進饌儀軌」, 卷附編 工伶條. 佳人剪牧丹…舞童角巾紅袍白質黑線中單衣藍也帶黑靴
5) 憲宗 戊申「進饌儀軌」卷3 工伶條.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飾竝同各舞呈才女伶而繫白汗衫
6) 憲宗 戊申「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佳人剪牧丹差備所着汗衫八件所入(玉色禾紬四十六片每片長一尺五]寸纓子次紅禾 紬十二片各長二尺二寸廣一寸縫造次玉色眞絲一錢六分)
7) 高宗 癸酉「進爵儀軌」, 卷2 工伶條.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繫玉色汗衫
8) 高宗 丁丑「進饌儀軌」, 卷2 工伶條.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繫紅汗衫
9) 高宗 壬辰「進饌儀軌」,卷3 工伶條.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繫紅汗衫
10) 高宗 壬辰「進饌儀軌」卷3 樂器風物條. 佳人剪牧丹差備所著汗衫二十件所入(玉色鱗紋甲紗三十六尺貿用)纓子及流蘇二 十件次(每件五色眞絲各一兩二錢貿用)
11) 光武 辛丑「進饌儀軌」·「進宴儀軌」, 卷3 工伶條.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繫玉色汗衫
12) 光武 壬寅「進宴儀軌」,卷3 工伶條. 佳人剪牧丹呈才女伶服色竝同各舞呈才女伶而繫玉色汗衫

佳人剪牧丹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1〉과 같다.

〈表-1〉에 나타나 있듯이 여령의 복식은 純祖에서 고종때 까지 변화가 없으나 한삼의 색상이 옥색한삼 혹은 홍색한삼으로 바뀌고 있다. 광무년에는 일반여령의 복식이 녹초삼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적이다. 무동복식은 같은 시대라도 관과 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純祖 28년에는 주전대에 아광모·무우리·녹한삼을하고 있으나, 29년에는 藍也帶·角巾·黑靴를 신고 한삼은 없다.

(2) 高句麗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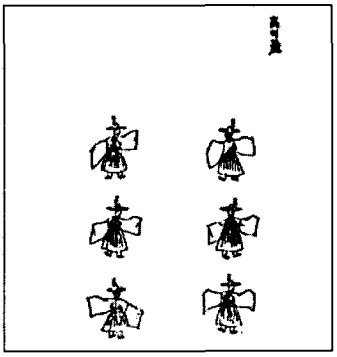
高句麗舞는 고구려 시대의 춤이 아니고 고구려와 연관된 옛 시[13]를 창사로 부르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춤이다.

〈表-1〉 佳人剪牧丹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발	기타
舞童	純祖28年(1828,무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紅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質黑線裳	珠細帶	硏光帽	無憂履	綠汗衫
	純祖29年(1829,기축) 「進饌儀軌」	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也帶	角巾		
女伶		黃綃單衫, 草綠單衣	裏藍色裳 表紅?裳	紅緞金鏤綢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女伶	憲宗14年(1848,무신)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黃綃單衫,	〃	〃	〃	〃	白汗衫
女伶	高宗10年(1873,계유) 「進爵儀軌」 卷2, 工伶條	〃	〃	〃	〃	〃	玉色汗衫
女伶	高宗14年(1877,정축) 「進饌儀軌」 卷2, 工伶條	〃	〃	〃	〃	〃	玉色汗衫
女伶	高宗29年(1892,임진) 「進饌儀軌」 卷3, 工伶條	〃	〃	〃	〃	〃	紅汗衫
女伶	光武5年(1901,신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綠草單衫	〃	〃	〃	〃	玉色汗衫
女伶	光武6年(1902,임인) 「進宴儀軌」	綠草單衫	〃	〃	〃	〃	玉色汗衫

高宗 癸巳(1983) 呈才舞圖笏記 高句麗舞의 무보에 "춤추며 상대하는 절차는 엽무와 같다."라고 하였다.

〈圖5〉는 순조28년 고구려무로 무동 6인이 추고 있다. 純祖 戊子「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에 "高句麗舞童은 金花漆笠에 灰色掛子·藍天翼·紅廣帶·烏鞋를 입는다[14]."고 했다.



〈圖 5〉 純祖 戊子, 高句麗舞

高句麗舞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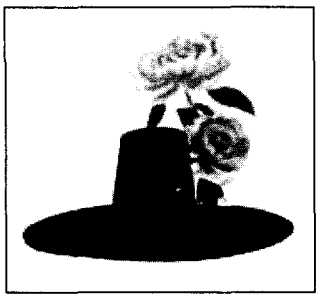
정재무복은 일반적으로 연회의 흥을 돋구기 위해 화려하고 색의 대비가 강하나 高句麗舞服은 회색의 쾌자를 입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고구려의 기개를 나타내기 위해 밝고 화려한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을 가미함으로서 웅장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무복중 회색이 나타나는 것은 高句麗舞服이 유일하다. 복식의 구성적 형태는 尖袖舞와 같다. 고구려무의 冠은 〈圖6〉와 같은 漆笠에 꽃을 곱게 장식한 金花漆笠으로

〈表-2〉 高句麗舞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발	기타
舞童	純祖28年(1828,무자) 「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灰色掛子, 藍天翼		紅廣帶	金花漆笠	烏鞋	

13) 純祖 戊子「進爵儀軌」卷附編 樂章條. 金花折風帽 白馬少遲回 翩翩舞廣袖 似鳥海東來

14) 純祖 戊子「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高句麗舞童載金花漆笠着灰色掛子藍天翼紅廣帶烏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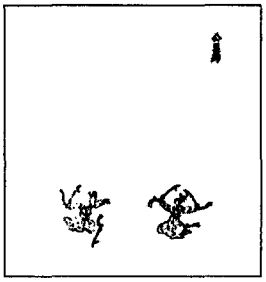
〈圖 6〉「리조복식도감」, 金花漆笠

독특한 관모를 썼다.

(3) 公莫舞

公莫舞는 純祖 때 進爵儀軌와 進饌儀軌에 의하면 원래는 項莊舞劍에서 나왔다고 한다. 「隋書」에 "항장이 칼춤을 추며 한고조를 치려 할 때, 항백이 소매로써 막아 한고조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공막의 뜻은 항백이 항장에게 한고조를 해치지 말라고 한데서 온 말이다."[15]라고 한데서 이 이야기는 신라 황창랑이 칼춤 추다가 백제왕을 해치려 했다는 고사와도 비슷하다. 나중에는 칼 대신 巾을 사용했다고 해서 巾舞라고도 한다.

〈圖7〉은 순조28년 공막무복식으로 2인의 무동이 양손에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純祖 戊子「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에 "公莫舞舞童은 高雲 · 를 쓰고 草綠石竹花戰服 · 銀束帶 · 胡靴를 착용하였다."[16]고 했는데 이런 복식형태는 〈圖8〉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圖 7〉 純祖 戊子, 公莫舞

〈圖 8〉「리조복식도감」, 公莫舞服飾

公莫舞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3〉과 같다.

〈表-3〉 公莫舞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발	기타
舞童	純祖28年 (1828,무자) 「進爵儀軌」	草綠石竹花戰服 挾袖衣		戰帶 銀束帶	高雲髻	胡靴	칼

公莫舞의 服飾은 칼을 들고 추는 武舞의 형태로, 〈圖8〉의 공막무복식 에서와 같이 머리에는 高雲를 쓰고 활동하기 편한 초록색의 전복과 挾袖衣를 입었으며, 전대를 두르고 호화를 신었다. 전복에는 곧고 강직함을 상징하는 竹을 그려놓은 것이 특징적이다. 고운계는 무동들이 쓴 관으로 형태는 금관과 동일한데, 단지 관 옆을 막았고 또 품계에 따르는 梁이 없는 것이 다르다.

(4) 萬壽舞

萬壽舞는 조선왕조 純祖때에 지은 것으로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춤으로 고려시대 당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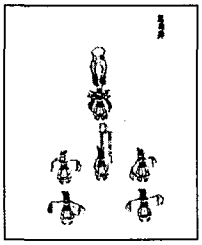
15) 「隋書」
牛弘請存필鐸巾拂等 四舞與新伎竝陳 因稱四年 按漢魏以來竝施於宴饗…
巾舞者 公莫舞也. 伏稻云 項莊因舞 欲劒高祖 項伯우長袖以扞其鋒 晋傳爲舞
焉 檢此雖非正樂 亦前代舊聲 故梁武報 沈約云 필鐸巾拂 古之遺風

16) 純祖 戊子「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
公莫舞舞童載高雲髻着石竹花戰服銀束帶胡靴

17) 純祖 戊子「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
萬壽舞童服色與]慶豊圖同奉仙桃盤舞童奉簇子舞童載珠翠金冠着紫羅袍白質黑線
中單衣藍質紅線裳藍紗帶白羽護領白羽掩腰寶帶無憂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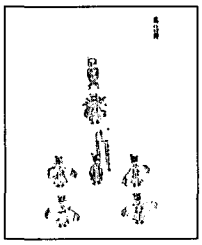
呈才 獻仙桃의 내용을 본받아 만든 춤이다. 당악 呈才 獻仙桃와 비교하면 죽간자의 구호 · 선모의 치어가 만수무에서는 족자의 창사, 선모의 창사로 되어 서로 다르나 선모가 선도반을 올리는 점에서 같다.

만수무의 복식형태를 살펴보면 〈圖9〉는 순조 28년 만수무로 맨 앞의 무동은 선도반을 올리고 있으며, 아래에는 5인의 무동이 있는데 가운데 무동은 족자를 들고 있다. 그 아래에는 악관의 모습과 포구락을 준비한 무동의 모습이 보인다. 純祖 戊子 「進爵儀軌」卷附編 工伶條 "萬壽舞童服色은 慶豊圖와 같아 花錦袍 · 白質黑線中單衣 · 藍質黑線裳 · 紫紗帶 · 珠翠金冠 · 無憂履 · 白羽掩腰 · 白羽護領 · 寶帶를 하고 奉仙桃盤舞童과 奉簇子舞童은 珠翠金冠 · 紫羅袍 · 白質黑線中單衣 · 藍質紅線裳 · 藍紗帶 · 白羽護領 · 白羽掩腰 · 寶帶 · 無憂履를 신었다[17]."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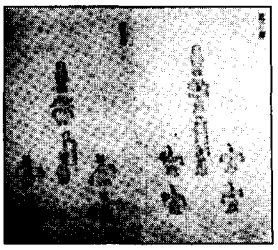


〈圖 9〉 純祖 戊子, 萬壽舞

〈圖10〉은 광무5년 만수무로 맨 앞의 무동은 홍포 · 남야대를 띠고 선도반을 올리고 있으며, 중간의 무동은 남포 · 홍야대를 띠고 족자를 들고 있고, 4인의 무동은 홍포 · 남야대를 띠고 춤을 추고 있다.



〈圖 10〉 光武 辛丑, 萬壽舞



〈圖 11〉 光武 壬寅, 萬壽舞

〈圖 11〉은 광무6년 만수무로 외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추고 있다.萬壽舞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4〉과 같다.

〈表-4〉에 의하면 純祖 28년에는 춤에서도 춤의 역할에 따라 복식에 차이가 있다. 즉 상의와 대가 구별되는데 무동은 화금포에 자사대나 학정대를 띠었으나, 봉선도반 무동은 자라포에 남사대나 보대를 했다. 만수무 복식의 특징은 慶豊圖 服飾과 같이 백우호령과 백우엄요를 두르고 있다.

〈表-4〉 萬壽舞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처		상 의	하 의	대	관	신발	기타
舞童	純祖28年 (1828,무자) 「進爵儀軌」	卷附編	花錦袍 白質黑線中單衣	藍質黑線裳	紫紗帶 寶帶	珠翠金冠	無憂履	白羽護領 白羽掩腰
奉仙桃盤舞童 奉簇子舞童			紫羅袍 白質黑線中單衣		藍紗帶 寶帶			
舞童	*光武5年(1901,신축) (연세대학교박물관)		紅袍		藍帶	花冠	黑靴	白色汗衫
奉簇子舞童			藍袍		紅帶	花冠	黑靴	

Ⅳ. 宮中舞踊服色과 陰陽五行

음양오행사상은 생활양식으로서 일반생활양식[18]뿐만 아니라 궁중무용복색에도 강하게 나타나 있다.

가인전목단 · 고구려무 · 공막무 · 만수무의 복색에 나타난 음양오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감과 겉감,

18) 음양오행은 風水地理說(陽宅과 陰宅), 服色(색동, 청 · 백 · 홍 · 흑 · 황의 五方色) , 飮食 (배추와 무) 등의 조화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상의와 하의, 상의와 대, 기본복식과 장신구 등의 색채조화가 상생의 배색이 주로 사용되어 춤의 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인 색의 조화는 초록(남색)과 홍색, 백색과 흑색의 조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5〉 宮中舞踊服色과 陰陽五行

	上衣	下衣	帶	신발	汗衫	비고
佳人剪牧丹	황초삼·녹초삼 홍라포·백질흑선중단의	이남색상·표홍초상 남질흑선상	홍단금루수대 주전대	초록혜 무우리	오색·백·홍녹	여령: 무동:
高句麗舞	회색쾌자·남천릭		홍광대	오혜		무동
公莫舞	초록식죽화전복·협수의		전대	호화		무동
萬壽舞	화금피홍피·백질흑선중단의	남질흑선상	자사대·남대	무우리· 흑화	백색	무동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궁중무용복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佳人剪牧丹은 여령은 황초삼(녹초삼)·초록단의·이남색상·표홍초상에 한삼(오색·옥색·홍색·백색)을 사용하였고, 무동은 홍라포·백질흑선중단의·남질흑선상·남야대 등을 하였다. 상생색의 배색으로 되어 있다.

둘째, 高句麗舞는 회색쾌자·남천릭·홍광대를 착용하였다. 회색은 고구려의 기개를 높이기 위해 유채색이 아닌 무채색을 사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公莫舞는 칼을 들고 추는 춤으로, 의복소재에 곧고 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 대나무(竹)를 그린 것이 특징적이다.

넷째, 萬壽舞는 화금포(홍포)·백질흑선중단의·남질흑선상에 백우엄요·백우호령을 두른 것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의 향악정재만을 다루었는데, 당악정재복식의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琴基淑(1994).「朝鮮服飾美術」. 열화당.

金東旭(1977).「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김영숙(1988).「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金英子(1992).「韓國의 服飾美」. 民音社.

金用淑(1987).「朝鮮朝宮中風俗研究」. 一志社.

김원용 외(1991).「韓國의 美 21-檀園 金弘道」. 中央日報社.

김원용 외(1991).「韓國의 美 19-風俗畵」. 中央日報社.

김홍경 편역(1993).「음양오행설의 연구」.신지서원.

박용숙.「韓國陰陽思想의 美學」. 일월서각.

성경린(1947).「朝鮮의 雅樂」. 博文出版社.

成慶麟(1979).「韓國傳統舞踊」. 一志社.

劉頌玉(1991).「朝鮮時代 宮中儀軌服飾」. 修學社.

柳喜卿(1982).「韓國服飾史」. 梨花女大出版部.

임동권(1984).「韓國民俗學論考」. 집문당.

林永周(1983).「韓國文樣史」. 미진사.

張師勛(1990).「韓國傳統舞踊研究」. 一志社.

鄭晛浩(1985).「韓國춤」. 열화당.

조규하.「服飾美學」. 수학사.

〈논 문〉

이주원(1983). 평안감사 환영도의 복식 고찰,「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이주원(1982). 李朝後期 宮中女舞服에 관한 研究. 복식6호.

金東旭 外(1989). 處容研究論叢. 蔚山文化院.

김영자(1984). 궁중여무복색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동방 학지(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金銀梨. 朝鮮宮中呈才服飾과 衣物에 관한 研究 - 純祖이후를 중심으로 -.

김천흥(1990). 궁중무용의 유형별 고찰. 무용한국, 춘하호.

신혜영(1990). 延世大學校 博物館所藏 光武5年 進宴圖

의 服飾. 이화여대 석사학위.
李京子(1975). 조선왕조시대 직물의 문양고찰. 이화여대 논총(25).
李順子. 朝鮮王朝 樂人服에 관한 硏究 - 악사, 전악, 악생, 악공을 중심으로 -.
李柱原(1983). 朝鮮後期 宮中男舞服에 관한 硏究 - 純祖 이후를 중심으로 -. 문화재(16).
李孝枝(1985). 「朝鮮王朝 宮中宴會飮食의 分析的 硏究」. 修學社.
張師勛(1985). 樂服과 舞服의 歷史的 變遷에 관한 硏究 - 특히 악학궤범과 각종의궤를 중심으로 -, 민족음악학. 서울대 동양음악 연구소.
張師勛, 韓國傳統舞踊 序說, 민족음악, 창간호. 서울대부설: 민족음악.
조정희(1978). 妓女服飾考. 동국여대 논문집.
조효순(1982). 정조의 헌강원 행차시의 궁중의례복식고 - 정리의궤를 중심으로 -. 복식(6).